

“차기 지방선거 전초전”... 정당·후보, 표심잡기 ‘사활’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첫 주말 유세전에서 각 정당마다 표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영광터미널 인근에서 유권자들이 한 후보의 유세를 경청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주말 유세전
농번기 농촌현장 찾아 지지 호소 국힘, ‘힘있는 여당 예산폭탄’ 강조 민주, 중량급 추미애·박지원 나서 혁신, 조국 신드롬 업고 표심 자극 진보, ‘다크호스’ 부상 지도부 지원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영광·곡성군수 후보자들이 초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열린 선거전을 벌였다. 일찌감치 ‘중앙 차원 총력전’을 예고한 각 당은 휴일에도 집중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영광·곡성군수 후보들은 주말 연휴에도 각 당의 메머드급 지원 속에서 농촌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곡성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의 △혁신당 박용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추미애 전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영광·곡성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추진 대표는 호남 최다선(5선) 박지원 의원, 지역구 이개호 의원, 주철현 전남도 당위원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장종태

·백승아·허영 의원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정 최고위원은 곡성 상가를 돌며 민주당과 자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국회 제1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연주 최고위원, 신정훈·권향엽·이강일 의원 등은 곡성 석곡시장 등을 돌며 바둑 표심잡기에 힘을 보탤다.

혁신당은 ‘호남 한달살이’를 이어가며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대표와 ‘명예 군수’를 자임한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광 장현, 곡성 박용두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상인·어르신·직장인 등과 악수와 인중샷 찍기 등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정부가 결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교육당국

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 이후 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알립니다

환경지킴이를 찾습니다

제30회 녹색환경대상 공모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2024녹색환경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광주은행과 전남일보가 함께 마련한 녹색환경대상은 지난 1995년 ‘영산강을 살리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기로 제정·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환경대상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기후변화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까지 총 200여 명의 환경지킴이들을 발굴해 시상했습니다.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힘써온 일반시민, 사회단체, 지자체, 기업, 학계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부문

- 생활속 환경실천** 일선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개선에 노력한 개인·단체
- 자연환경보전** 바다 및 강(도랑 포함), 먹는 물, 미세먼지, 대기, 폐기물 등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
- 환경교육** 환경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단체
- 서한태박사상** 지역 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한 개인·단체

접수·문의 접수기간 10월7일(월)~11월15일(금)

전화 (062)519-0730~1

팩스 (062) 510-0436

우편 (61474) 광주시 동구 제봉로137 전남일보 6층 사업본부

※자세한 내용은 www.jnilbo.com 참조

주최 광주은행·전남일보

주관 (사)전일엔컬스

후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24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클린워킹 대회

'광주천에서 생태힐링 클린워킹해요!'

일시: 2024년 10월12일(토) 오전 9시
장소: 광주시 북구 두물머리 둔치 (천변우로)

클린워킹 코스:

- A코스 = 두물머리(출발점) ↔ 광천1교 ↔ 발산교 ↔ 양동복개상가 ↔ 광주교(상류반환점)
- B코스 = 두물머리(출발점) ↔ 제2광천교 ↔ 광암교 ↔ 동천교 ↔ 유촌교 ↔ 상무교(하류반환점)

참가 신청: 2024년 9월 19일(목)~10월 8일(화)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참가자 기념품 제공 및 학생 자원봉사 활동(4시간) 인정
참가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주최/주관: 全南日報
후원: